

# 〈The End of Evangelion〉의 구원관 연구 : '인류보완계획'을 중심으로

이길용\*

## 목 차

- I. 여는 글: 현세구원, 내세구원?
  - II.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한 예?- 끝없이 반복되는 <에바 담론>
  - III. 에바의 포장들-여러 상징들과 종교적 외피에 대하여
  - IV. <인류보완계획>은 구원의 완성?
  - V. 닫는 글
- 참고문헌  
ABSTRACT

## 초 록

이 글은 1997년도에 개봉된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 The End of Evangelion>에 나타난 구원관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구원을 이야기 할 때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역사 종교들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 등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 역시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 하고, 또 인간의 어두움(無明)을 지적한다. 그러한 원죄와 무명이 인간을 보다 더 완벽한 경지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본 것이다. <에바>의 구원관도 그런 구조적 특징을 공유한다. <에바>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룹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젤레>와 겐도, 그리고 신지 등은 각자의 희망에 따라 구원을 요청하고 실현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인류 전체를, 혹은 개인을 결핍의 존재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구원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원의 완성을 '지금', 그리고 '이곳'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세적 특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에바>의 구원관은 기존 종교들과 공유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이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에반게리온, 가오닉스, 애니메이션, 애니메, 구원, 구원관, 카발라

\* 본 논문은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년 정기 춘계 종합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 1. 여는 글: 현세구원, 내세구원?

이 글은 <The End of Evangelion>(이후 EOE로 표기)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관, 혹은 구원사상 추적을 주목적으로 한다.

우선 '구원'이라 하면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종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종교들이 구원을 말하고, 또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이 텍스트 삼아 분석하고 있는 대상은 종교가 아니라 '영화', 그것도 '아니메'<sup>1)</sup>라 불리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다. 극장에 걸려 사용된 애니메이션은 다른 대중 미디어들이 그렇듯이 상업용이다. 이와 같은 상업용 작품에서 구원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그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 그리고 이 영화의 모태가 되는 TV시리즈 <신세기 에반게리온>(Neon Genesis Evangelion)을 보면 그와 같은 편견은 사라지게 된다. TV판이든 극장판이든 <에반게리온> 시리즈는 상업용 아니메인데도 상당한 정도의 종교사상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 작품 뒤에 흐르는 주제 역시 지극히 '종교적'이고 '구원 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화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구원사상에 대한 탐구는 작품 이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에반게리온>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인류보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 바 <에바>의 구원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원'의 문제일 것이다. '인류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이 물음을 이끌어갈 주제가 될 것이다. 구원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결핍이다. 즉 인류는 충분히 행복하고 완벽하기에는 무언가 빠져있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재론적 결핍'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구원은 생각할 수 없다.<sup>2)</sup> 시마조노 스스무(島蘭進) 역시 구원의 필요성은 인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고 지적한다.<sup>3)</sup>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원종교'(Religions of Salvation)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구원을 약속하며 또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임을 지적한다.<sup>4)</sup> 그러면서 종교를 벨라(Robert. N. Bellah)의 도식에 따라 <원시종교-고대종교-대종교-신종교-신신종교-신영성운동>으로 구분한 뒤, 다시 대별하여 <역사종교>와 <신종교>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구원'의 문제를 제시한다.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으로 대표되는 역사종교와 20세기 중후반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많은 수의 <신종교>를 구분한다. 그리고 다시 이들을 하나로 묶는 범주로 앞서 언급한 '구원종교'를 내세운다. 즉 역사종교나 신종교나 이 '구원'을 주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구원을 말하느냐에 따라 둘로 나뉘게 되는데, 시마조노 스스무에 따르면, 역사종교는 주로 '내세구원'을 그리고 신종교는 '현세구원'을 주장한다.<sup>5)</sup> 즉 대부분의 역사종교는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극복하여 얻게 되는 지복을 '현세와 단

1) 애니메이션의 일본식 표현이다. 90년대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의 세계적 영향력이 거대해지자 이제 학계의 공식 용어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아니메'에 대한 학문적 연구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Napier, Susan J., Anime: From Akira to Princess Mononoke, 임경희·김진용 역, 『아니메』, 루비박스, 2005.

2) Smart, Ninian, 2005, p.8526.

3) 시마조노 스스무, 1997, p.26.

4) 시마조노 스스무, 앞의 책, p.6.

5) 시마조노 스스무, 앞의 책, p.35.

절'된 어떤 곳에서 찾고 있으며, 신종교는 이를 '현세의 연장' 속에서 구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바로 지금 내세 혹은 현세 구원이라는 스스무의 구별법에 대한 진단을 시도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글이 추적하고 있는 EOE의 구원관을 살피는데 스스무의 구원분류는 주요한 바로미터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고 EOE에 대한 분석이 정리될 즈음이면 자연스레 스스무의 구별이 가지는 정당성, 혹은 모호성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EOE이라는 작품과 그 안에 스며있는 구원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II. 시뮬라시옹(simulation)의 한 예? - 끝없이 반복되는 <에바 담론>(Eva-discourse)

많은 TV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에바>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10월 4일 <TV 도쿄>를 통해 첫 방송을 탄 후 총 26편이 제작되었고, 마지막 회가 1996년 3월 27일 방영되었다. TV시리즈가 완결되었는데도 당시 <에바>의 열풍은 사그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논의는 거세어져 일본 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매카닉 로봇 애니메이션들과는 달리 다양한 종교 · 철학 사상이 혼합된 줄거리하며, 실사영화도 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의 세밀한 심리묘사, 아울러 매우 중층적인 스토리구조 등이 작품을 손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으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연재를 마친 후 에바는 더 많은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후폭풍 덕분에 제작사 가이낙스는 그 다음해(1997) 에바 담론을 종결지를 요량으로 두 편의 영화(6)를 더 만들게 된다. 그 중 <사도신생>은 TV판의 압축형태라 볼 수 있고, EOE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TV판 25, 26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7)

에바 담론의 확대 재생산은 거기에서 멈춰 서지 않았다. 1997년 EOE의 등장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지 10년이 지난 2007년부터 극장가에는 새로운 <에바 담론>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의 등장이다. 이 새로운 시리즈는 3편 내지 4편으로 기획되었고 지금까지 2편의 영화(8)가 극장에 걸렸다. 10년을 넘어 또 같은 포맷의 다른 이야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예는 영화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에바의 '시뮬라시옹'은 멈출 줄을 모른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과연 이러한 쉬지 않는 <에바 담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정교한 서사구조일까? 그럴 수도 있다. 박기수를 따르면, 에바의 서사구조는 세 가지(① 리좀(9)(Rhizome)적 성격화 과정 ② 두 층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③ 개방적 서사 지향) 특징을 지닌다.10) 보다 엄격히 평

6)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 DEATH & REBIRTH 사도신생>과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극장판 THE END OF EVANGELION 에어/진심을, 너에게> 이렇게 두 편의 영화.

7) 그래서인지 극장판의 구조로는 혼치 않게 EOE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 즉 극장판 자체가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TV판 25, 26화의 수정된 에디션으로 제작된 것과는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8)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 서>(2007),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 파>(2009).

9) 리좀(Rhizome)은 '뿌리'를 뜻하는데 겹속이 자유롭게 이어진 뿌리의 특성을 나타내서 붙인 용어이다.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은 나무형과는 달리 리좀은 우발적이고 자유로운 과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해 소개되었다.

10) 박기수, 2001, 6, p.104.

가해 보자면 사실 에바의 서사구조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구조는 아니다. 관객들이 곧바로 이야기 속에 몰입하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경향은 TV판이나 극장판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TV판은 마사토가 에바라 불리는 거대 생체로봇 파일럿으로 14세 소년 신지를 선발하기 위해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왜 하필 14세 소년인지, 또 에바라는 로봇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불시에 찾아와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는 사도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지 에바의 서사는 세밀한 설명을 달지 않는다. 그냥 싸움은 시작되고 갈등은 증폭된다. 이러한 구조는 EOE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아니 EOE에서는 그 혼란스러움이 더하다고 할 수 있을 지경이다.

보통 극장판이라면 독립된 서사구조를 갖거나 그 자체로 완결한 스토리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EOE의 시작은 TV판과 이전 극장판을 밀도 있게 감상하지 않은 관객이라면 처음부터 알 수 없는 스토리 전개에 현기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EOE의 스토리보드<sup>11)</sup>만 살펴보아도 금시 알 수 있다.

	시간대	내용	비고
Ep. 25 "Air"	00.00-03:49	- 도입부 - 부상당해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스카와 신지(알몸의 아스카를 보고 자위를 하는 신지)	전봇대에 걸쳐져 있는 광고판, 그리고 그 내용 "산부인과, 성병" (01:48)
	03:50-05:49	- 서로 다른 Seele와 겐도의 인류보완계획	"신도 사람도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아, 이윽고 하나가 되기 위한..." (05:29) "죽음은 아무 것도 낳지 않습니다." (05:32)
	05:50-16:48	- Seele의 Nerv접수 vs. 리츠코의 방화벽 저항	Ep. 25 "Love is destructive" (16:48)
	16:49-22:21	- 겐도와 레이 - 신지를 구한 마사토	
	22:22-26:50	- 아스카의 소생, 부재했던 모성의 발견, 그리고 각성(A. T. Field의 의미 인식) - 아스카의 분노 폭발	"죽는 건 싫어!"
	26:51-38:39	- 에바시리즈 9기 투입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와 함께 이어지는 전투신. - 릴리스 앞에 선 겐도와 레이, 그리고 리츠코. - 마기의 자폭 거부	"어른의 키스야. 돌아오면 그 뒤를 계속 하자." (30:00-33:00)

11) 스토리보드의 시간대는 <Air>와 <진심을 그대에게>를 독립된 CD로 구분한 VCD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38:40-4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바 시리즈 부활과 아스카의 폭주</li> <li>- 에바 1호기 활동 재개(40:55)</li> <li>- 아스카와 2호기의 처참한 몰골 확인 비명을 지르는 신지</li> </ul>	
Ep. 26 “진심을 그대에게”	00:00-0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미널 도그마에서 겐도와 레이. (겐도는 자신만의 &lt;인류보완계획&gt;을 시도하려 함.)</li> </ul>	
	02:13-0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호기 속의 신지. 아스카의 몰골에 비명.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레이</li> </ul>	
	02:44-3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룡기누스 창 의 귀환과 &lt;인류보완계획&gt;을 완성하기 위한 의식의 시작</li> <li>- 신지의 양손에 나타난 성흔(04:10)</li> <li>- 릴리스와 레이의 합체(07:10)</li> <li>- 합체된 릴리스와 1호기의 만남(09:10)</li> <li>- 재등장한 카오루(10:33): 카오루와 합체된 레이</li> <li>- 릴리스와 1호기의 합체→거대한 생명나무로의 변환(11:15)</li> <li>- 합체 후 신지 내면의 갈등(12:12-20:56) (어머니 부재 심리의 재확인. 스스로 존재를 포기하는 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T.필드의 해체 시작(22:31)</li> <li>- 1호기에 먹히는 겐도(24:05)</li> </ul> </li> <li>- 다시 시작되는 신지의 내적 갈등(25:37-2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 시작(27:21-30:20)</li> </ul> </li> </ul> <p>(너무도 보잘것없이 극도로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것이 던지는 삶의 의미. 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체된 레이-릴리스의 파괴(30:25)</li> <li>- 한 몸이 된 레이와 신지의 대화(30:48-32:00)</li> <li>- 신지, 카오루 그리고 레이의 대화(32:01-3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릴리스의 파괴와 1호기의 재등장(33:27)</li> </ul> </li> <li>- 다시 룡기누스의 창을 뽑아내는 1호기(3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멸하는 양산형 에바시리즈(35:20)</li> </ul> </li> <li>- 신지와 레이의 만남, 그리고 이별(36:37-38:05)</li> </ul>	<p>“평등한 죽음과 기도로 사람들을 진정한 모습으로!”(03:30)</p> <p>“에바 1호기 파일럿의 결여된 자아로 사람들의 보완을!” (09:20)</p> <p>“목소리를 들려줘 내 상대를 해줘! 나한테 신경 써 줘!”(17:50)</p> <p>“혼자 두지마! 날 버리지 말아줘!”(19:17)</p> <p>“자신이 상처 받기 전에 세계를 거절하고 있어”(카오루, 23:49)</p> <p>“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형태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워서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23:50)</p>
<b>One more final: I need you</b>	38:06-4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붉은 색 해변에 나란히 누워있는 신지와 아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다 위에 모습을 드러낸 레이(38:55)</li> <li>- 아스카의 목을 조이는 신지(39:42)</li> </ul> </li> <li>- 목을 조르는 신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는 아스카(40:12)</li> <li>- 목조르기를 멈추는 신지(40:25)</li> </ul>	

		- 아스카의 얼굴로 떨어지는 신지의 눈물(40:32) - 호느끼는 신지(40:48) - 아스카의 마지막 대사 “기분 나빠” (41:10)	
--	--	--	--

표 1. <The End of Evangelion>의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EOE의 서사구조는 박기수의 분석처럼 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딱히 중심이랄 것이 없으며 다양한 캐릭터와 그들의 사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손쉽게 서사구조를 관객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한 정도이다. 게다가 작품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종교적 코드와 상징들이 에바의 서사를 이해하기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매료되고, 또 열광한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혹 그것을 이야기의 주제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복잡한 리즘적 구조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주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에바는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장통을 느끼는 불완전한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이 신지가 되었던, 혹 레이, 아스카, 미사토, 리츠키, 카오루, 겐도가 되었던 간에 에바 전편에 걸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이들이다. 어머니나 애인, 혹은 동료의 부재(不在)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에 의해 에바의 스토리는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바시리즈 전체는 이와 같은 캐릭터들의 ‘결함 극복’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는 영화를 끌고 가는 두 개의 관점<sup>12)</sup> 모두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결함 있는 캐릭터들의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젤레’(Seele)로 대표되는 거시적 <인류보완계획> 역시 이와 같은 ‘결함 극복’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EOE를 비롯한 에바 시리즈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이란 바로 결함의 극복이기 때문이다.

에바라는 작품의 장르구별은 매우 어렵다. 쉽게 보자면 거대 로봇이 등장하고 그를 조종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로봇 매카닉>, 혹은 표현상의 특징을 짚어 <사이버 펑크> 유의 작품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피소드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성장심리를 그리고 있기에 SF로 포장된 <학원 로망스물>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에바는 꼭 들어맞지가 않는다. 그건 바로 에바가 깔고 있는 주제의 무게가 녹록치 않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화라는 미디어에서 ‘구원’의 문제를 취급한 것은 비단 에바만은 아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터미네이터> 역시 주된 테마는 ‘기계들의 공격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sup>13)</sup> 그리고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의 많은 작품들 역시 인간의 구원문제를 주요 테마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바의 구원 역시 그런 작품들과 비슷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에바의 구원은 거대 담론으로만 묶여있지 않고 캐릭터 각자의 미시적 관계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에바의 구원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거시적 측면만 강조되지는 않는다. 이런 에바의 이중 장치가 에바를 단순 로봇 매카닉이나 사이버 펑크유의 영화로 남겨두지 않는다. 이 점에서 에바의 큰 맥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바로 <인류보완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 바로 젤레 위원회의 거시적 인류보완계획과 겐도의 개인적, 혹은 미시적 구원시도가 그것이다.

13) Inge Kirsner(Hg.), Religion im Kino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0), p. 103.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보완계획>에 대해 살펴봐야겠지만, 그 전에 앞서 EOE를 비롯해 에바시리즈를 포장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들과 종교 사상들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에바의 포장들-여러 상징들과 종교적 외피에 대하여

에바의 대본과 총감독까지 담당한 안노 히데야키의 상징 사용과 새로운 용어<sup>14)</sup> 창작은 가히 천재적이다. 우선 EOE만 놓고 볼 때도 그 시작과 마침에서 동일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다. 또한 안노 감독은 에바 시리즈 곳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섹스 코드를 설정해놓고 있는데 EOE에서도 이는 변함없다. 영화 도입부에는 병실에 누워있는 아스카와 신지의 모습이 등장한다. 갈등의 관계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누구나처럼 서로 탐구의 대상이기도 한 아직 여물지 않은 두 인간의 애증관계가 도입부부터 진득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장면만으로도 에바라는 작품의 성격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견고한 ‘마음의 벽’(A.T. Filed)을 넘어서지 못한 채 애증의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는 이 두 소년 소녀가 밀폐된 공간 안에 있다. 그런데 소년은 의식이 가득 찼고, 소녀는 그것이 끊어진 상태다. 의식 있는 자의 독단적 행위가 가능한 시공을 설정하고 제작진은 예의 변함없는 섹스코드를 휘두른다. 어머니 부재와 아버지 애정결핍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신지에게 아스카는 자신의 부재경험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스카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며, 또한 자신과 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에바의 파일럿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지금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다. 신지로서는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 또 하나의 부재체험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에 적잖은 정서적 공황을 느끼게 된다.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아스카를 흔들어대는 신지. 그리고 그의 손길에 드러나 버린 아스카의 알몸. 순간 영화는 멈춘 듯이 무려 30여초 동안의 정지된 몇 장면만을 관객들에게 제공한다. 그 사이 비어있는 그림을 채우는 것은 신지의 소리. 그리곤 ‘인간의 몸에서 나온 물’. 신지는 아스카의 알몸 앞에서 자위를 하고 있다.

이제 EOE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자. 젤레의 <인류보완계획>을 거부하고 다시 지상에 내려온 신지는 붉은 빛의 바닷가에 누워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스카. 신지는 일어나서 아스카의 목을 조른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서서히 아스카는 오른손을 움직여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신지의 뺨을 어루만진다. 놀라는 신지. 그리고 아스카의 얼굴에 떨어지는 역시 ‘인간의 몸에서 나온 물’. 신지는 아스카의 얼굴에 몇 방울의 눈물을 떨구고 멈추지 않는 흐느낌을 이어간다.<sup>15)</sup>

안노감독이 의도했던 안했건 간에 EOE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물은 종교학적으로 원천과 기원(fons et origio)을 상징 한다.<sup>16)</sup> 그 안에 모든 가능성과 잠재성이 들어있기에 물은 아울러 모든 생명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태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곧 ‘재생’(Rebirth)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7)</sup> 수메르어로 물은 ‘a’라 표

14) ‘A.T. Field’, ‘LCL’, ‘Umbilical cable’ 등을 꼽을 수 있겠다.

15) 이 두 장면만으로도 안노가 이 작품에 장치한 포르노코드를 읽기에 충분하다.

16) 미르세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1985, p.208.

17) 미르세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앞의 책, p.209.

기되는데, 이 단어는 동시에 '정액', '수태', '생산'을 뜻하기도 한다.<sup>18)</sup> 이와 같은 물의 상징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영화의 처음과 끝을 물로 처리한 안노의 의도는 매우 적절했고 또 탁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가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인류보완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현 상태를 넘어 새로운 탄생, 혹은 재생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죽음'과 '생명', '수태'와 '탄생'을 상징하는 '물'이라는 기표는 에바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LCL 용액에 잠겨야 하는데 이 역시 적절한 물의 상징 사용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물은 작품 내내 화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만큼 안노는 물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에바를 위해 적절히 배치,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에바의 포장은 바로 종교이다. 그중에서도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Qabbala)<sup>19)</sup>를 들 수 있다. 보통 유대교하면 그리스도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생각한다. 하지만 종교학적으로 유대교는 크게 두 가지<sup>20)</sup>로 구분된다. <성서 유대교>는 알다시피 히브리 성서에서 언급되는 유대인들의 종교문화를 일컫는 말이고, <랍비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후 공회당과 토라연구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된 유대교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교는 랍비 유대교이고, 이는 그리스도교 탄생 이후에 기원후 2세기 중후반부터 생겨난 종교전통이다. 카발라는 그보다 더 후대에 유행한 신비주의 운동인데, 대략 기원 후 12세기에 이르러 프랑스 프로방스(Provence) 지역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로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sup>21)</sup>

카발라의 등장에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교로 통합된 유럽사회가 7세기 이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득세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력과 예루살렘을 놓고 벌인 충돌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유대인들이었다.<sup>22)</sup> 1095년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면서 북유럽 국가들은 우선 유대인들을 학살한다. 당시 유럽사회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 보편 국가'(res publica christiana)를 이루었는데, 그에 걸맞지 않게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유럽사회와 주도층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고, 게다가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을 주로 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덧칠되어 점점 유대인에 대한 탄압은 거세어 졌다.<sup>23)</sup> 이런 상황에서 절망한 유대인들에게 신의 임재를 강조하며 희망을 준 이들이 바로 카발라 신비주의자들이었다.<sup>24)</sup>

카발라에서는 히브리 성서의 신 엘로힘, 혹은 야훼를 훨씬 더 세련되게 신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름 또한 성서와는 달리 '에인 소프'(Ein Sof)라 하며, 무한하고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무한정자인 신이 악에 물든 세계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그것이다. 이 문제를 대표적인 카발라 신비주의자인 이삭 루리아(Isaac Luria, 1534~1572)는 신플라톤적으로 해결한다. 에인 소프는 세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 안에 최초의 공

18) 미르세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앞의 책, p.210.

19) '카발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qbl'로부터 왔다. 그 뜻은 '전송받은'이다. 카발라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Ponce, Charles, 조하선 역, 『카발라』, 물병자리, 1997.

20) 성서 유대교, 랍비 유대교

21) 카발라가 기원으로 삼고 있는 신비주의 운동의 유래를 1, 2세기 랍비 아키바(Aqiba)가 이끄는 '메르카바'(Merkavah)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니니안 스마트, 윤원철 역, 2004, p.365.

22) 최인식, 2008, p.252.

23) 니니안 스마트, 윤원철 역, 앞의 책, p.365.

24) 최인식, 앞의 책, p.252.



간을 만들었다. 이를 '침춤'(tsimtsum, 축소)이라 한다.<sup>25)</sup> 무한자 에인 소프가 유한한 공간에 들어옴으로 창조는 시작 된다. 그 후 신의 빛이 그 공간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리고 첫 인간(Adam Kadmon)이 창조된다.<sup>26)</sup> 이어 인간의 눈, 코, 입 등을 통해 빛이 새어 나와 세피로트(sefirot)의 영원한 모습들이 되는 그릇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최고로 여기는 3개의 세피로트인 케텔(kether, 왕관), 호크마(hokhmah, 지혜), 비나(binah, 지성)가 각각 아담의 '코'와 '귀',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후 다시 여섯 개의 세피로트가 눈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그 때 이들을 담는 그릇의 일부분이 깨져버렸다. 이를 루리아는 '그릇의 파괴'(shevirath ha-kelim)이라 부른다. 이때 몇몇 빛은 다시 위로 올라가 신에게 돌아갔으나 나머지는 아래로 떨어져 혼돈 상태로 남게 되었다 한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신적 조화'는 깨어지고 혼란이 생겨났다. 이제 문제는 이를 다시 되돌리는 일이다. 이를 '티쿰 올람'(tikkun olam), 즉 '회복'이라 불렀다.<sup>27)</sup> 루리아에 따르면, 신은 '그릇의 파괴' 후 혼돈에 빠진 (신의) 빛을 구원하는데 인간을 '협력자'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만다. 이후 신은 다시 구원사역의 파트너로 유대민족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의 빛을 회복시키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신의 말씀인 '토라'(torah)를 지키며 경건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sup>28)</sup> 이렇게 카발라 전통은 '신비주의'와 '윤리'를 통합하게 된다.<sup>29)</sup> 따라서 신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 구원을 위해 악과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은 박해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sup>30)</sup>

이렇듯 안노 감독은 에바 시리즈에 적절한 상징과 종교적 외피를 입힘으로써 관객들의 호기심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무언가 익숙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좀처럼 해석되지 않는 영화 속 이미지들과 미장센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장치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난해한 부분은 작품의 외피에 해당한다. 각종 상징들과 일반인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신비전통들. 하지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구원문제'이다. 결핍된 무엇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욕구. 부족한 것에 대한 인간의 갈망. 갖고픈 욕망에 대한 인간의 열정. EOE를 비롯한 에바 시리즈는 바로 그런 인간의 구원에 대한 충족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에바의 구원관 탐구는 에바 이해를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다.

#### IV. <인류보완계획>은 구원의 완성?

앞서도 지적했듯이 구원은 결핍을 전제로 한다. 무언가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지극한 행복이나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종교전통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불교를 포함한 인도 종교전통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무명'(無明, avidya)에서 찾는다. 즉 우주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25) 카렌 암스트롱, 배국원 외 역, 1999, p.481.

26) 최인식, 앞의 책, p.254.

27) 최인식, 앞의 책, p.255.

28) 카렌 암스트롱, 앞의 책, p.485.

29) 최인식, 앞의 책, p.255.

30) 최인식, 앞의 책, p.256.

불행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한다. 반면 유신론 종교에서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에서 결함을 찾는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신과 동일하지 않으며 더러운 죄에 물든 존재라는 것이다. 바로 원죄 개념이 그와 같다. 하지만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sup>31)</sup>

그렇다면 EOE에서 말하는 인간의 결핍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선 EOE는 3개 정도의 <인류 보완계획>을 제시한다. 이 중 2개는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젤레와 겐도의 보완계획이다. 이 양자의 계획은 공유하는 바도 있지만, 결국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 젤레는 '써드 임팩트'(Third Impact)를 통해 현 인류를 멸종시키고 새로운 인류의 창조를 이끌려 하고 있다. 이때 젤레가 원하는 새로운 인류는 서로의 벽을 허문 상태, 즉 하나된 모든 인류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는 A.T. Field의 해체를 통한 개별 존재의 해체로 표현된다. 태아 상태로 환원시킨 아담을 몸속에 지닌 레이와 두 번째 사도 릴리스의 결합이 써드 임팩트를 불러와 결국 인류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는 A.T. Field를 잃게 된다. 그리곤 하나씩 둘씩 가장 사랑하는 이를 그리며 소멸되어 간다. 작품 속에서는 1호기와 양산형 에바 시리즈의 '보완의식' 후 강렬한 붉은 빛의 점들로 인류의 소멸이 상징화되고 있다. 젤레 위원회의 입장에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결함이며 죄이다. 갈등과 싸움, 질서와 허물로 서로를 밀어내는 인간 존재의 갱생은 '개선'이 아니라 '재생'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재생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인류는 소멸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통과 의식이네. 폐색한 인류가 재생하기 위한. 멸망의 숙명은 신새로운 탄생의 기쁨이기도 하네. 신도 사람도 모든 생명이 죽음을 맞아, 이윽고 하나가 되기 위한..

하지만 이에 대한 겐도의 입장은 달랐다.

죽음은 아무 것도 낳지 않습니다.

겐도는 모든 이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그의 결핍은 오직 하나, 바로 그의 아내 '유이의 부재'뿐이었다. 유이만 소생한다면, 그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개별자 겐도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겐도는 젤레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만의 <인류보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의식을 진행한다. 터미널 도그마에서 겐도는 또 다른 복제 레이와 나란히 선다. 그리고 그의 몸에 환원된 아담을 집어넣음으로써 유이와의 만남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복제 레이가 자의식을 가지고 겐도의 계획에 반기를 든다.

난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아닌걸...

그리고 레이는 릴리스를 향해 날아오른다. 오히려 레이는 겐도의 구원보다는 자신의 구원을 선택

31) 유대교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신이 준 계율을 성실히 지키고 따름으로 문제를 극복하려 하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라는 매개자를 믿음으로써 원죄문제를 해결한다.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신지가 자리한다. 신지와의 합일을 통한 구원. 레이의 자의적 선택은 결국 겐도의 구원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여기서 켈레의 구원이 거시적이라 한다면, 겐도의 그 것은 개인적이라 할 수 있다. 인류, 우주 등 보편개념을 끌어오지 않으며 그는 초지일관 자신의 아내를 다시 만나는 것을 구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EOE에서 이 두 가지 <인류보완계획>은 결국 켈레의 것으로 완성되는 듯이 보인다. 인형이 아니라는 레이의 독립선언과 함께 겐도의 구원사업은 파국을 맞고, 결국 레이와 신지의 결합을 통해 써드 임팩트가 생겨난다.

그런데 써드 임팩트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은 에바 1호기 파일럿인 신지의 ‘자기 포기’이다. 오래 이어진 어머니 부재 경험. 그리고 어머니에게만 매몰되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의 결핍된 부모 사랑이 결국 그 자신을 포기하게 만든다. 신지에겐 남과 나를 구별하는 마음의 벽, 즉 A.T. Field를 이어가는 것이 그만큼 버겁고 힘들었던 것이다. 더 이상 이 힘듦을 감내하지 않겠다는 신지의 포기선언은 곧 인류 전체의 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이때 S2기관<sup>32)</sup>을 흡수하고 각성을 통해 신의 경지에 이른 에바 1호기를 통해 신지의 판단은 개인이 아닌 인류의 것이 된다. 신지의 자기 포기 선언은 곧 켈레식의 <인류보완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신지의 포기 선언과 더불어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Komm, Süßer Tod!)라는 영화의 주제가가 터져 나온다. ‘소멸’, ‘죽음’. 그것은 새로운 하나가 되기 위한 의식이요 과정일 뿐이다. 영화는 중극으로 치달으며 빼어난 영상미를 보여준다. 수백, 수천, 수만의 레이가 우주를 채우며 (A.T.Field의 구체로서) 사람들의 ‘개성’을 파괴한다. 같듯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벽을 허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현대 지금 그것이 ‘개체 생명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노의 용기는 죽음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정도였다 보다. 곧 카메라 앵글은 스크린을 떠나 관객을 향해, 세상을 향해 돌려진다. 마치 안노는 이 기이한 ‘해체 작업’을 통해 이런 세상을, 이런 당신들을 버릴 수 있는가를 관객들에게 되묻고 있는 듯하다. 3분여에 걸친 짧지 않은 실사 그림을 보여줌으로써<sup>33)</sup> 안노는 그의 혼란스러운 구원관을 정리한다.

다시 영화는 아니메로 복귀한다. 하나가 되었던 레이와 신지. 하지만 이제 서로의 벽을 인정하려 한다.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고독 속에 있다는 것. 안노는 이를 레이와의 대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레이: “이곳은, L C L의 바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 속. A.T.필드를 잃은, 자기의 형태를 잃은 세계. 어디까지가 자기인지, 어디부터가 타인인 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세계 어디까지나 자신이면서 어디에도 자신이 없는, 취약한 세계...”

신지: “나는, 죽은거야?”

레이: “아니,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을 뿐.. 이것이 네가 바란 세계... 그거야..”

32) ‘Super Solenoid Engine’의 약자이며 사도들의 몸에서 발견되는 제한 없는 파워를 뜻한다. 반면 인간이 아담을 본따 만든 에바시리즈는 전원 케이블을 달고 있어야 하며, 전원이 멈춘 상태에서는 5분정도의 구동 시간만을 갖게 된다.

33) 카메라의 앵글이 세상과 관객들을 향하며 배경음악으로는 바흐의 유명한 칸타타 곡 중의 하나인 “예수는 나의 기쁨되시니”(Jesus bleibet meine Freude)가 흘러나온다.

신지: “하지만, 이건 달라 다르다고 생각해.”

레이: “타인의 존재를 지금 다시 원하면, 다시 마음의 벽이 모든 사람들을 떼어 놓아. 다시, 타인의 공포가 시작되는 거야.”

신지: “괜찮아...”

신지: (레이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에서 떼어내며) “고마워...”

신지: “그곳에서는, 삶은 일밖에 없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분명, 도망쳐도 괜찮았던 거야. 하지만, 도망친 곳에서도 좋은 일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없었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니까.”

카오루: “다시 A.T.필드가, 너나 타인을 상처 입혀도 괜찮은 거야?”

신지: “상관없어 그래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너희들은, 뭐지?”

레이: “희망이란 거야.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

카오루: “‘좋아한다.’라는 말과 함께 말이지.”

신지: “그래도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야. 자기 멋 대로인 믿음이야. 바람 같은 것 따위야. 쭉 계속될 리가 없는 거야. 언젠가는 배신당하는 거야. 날 버리는 거야. 하지만, 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의 마음이,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곤 신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옆엔 여전히 애증의 흔적이 묻어있는 아스카가 누워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아스카의 마지막 대사 “기분 나빠...” 사라지고 있던 A.T.필드가 다시 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사라 할 수 있겠다. 사람이 무서워 피했는데,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고독,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로 바뀐 ‘절대 고독’과 싸워야 했다. 결국 도피가 구원이 아님을 깨달은 신지는 현실로 돌아온다. 마치 지나간 꿈 끝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여러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안노 감독은 현실을 다시 해석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조언을 관객들에게 하고 있는 셈이다.

위에서 살펴본 EOE에 제시된 구원의 모습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대 상	결핍 내용	구원 방법	구원의 결과
Seele	인간의 원죄	써드 임팩트	인류의 소멸=전 인류의 합일(x)
젠도	유이의 부재	아담+릴리스	유이와의 재회(x)
신지	부모의 부재 / 자신감 결여	자아의 포기	아스카와의 재회(O)

표 2. 구원의 모습

결국 구원방법의 선택은 관객의 몫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관객의 물음과 궁금증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분명 이는 지금 인간의 상황을 ‘결핍’으로 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는 점에서 해방과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론 부분은 열려있다. 그러다보니 에바 담론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된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의 구원을 말하듯 에바 역시 보는 이마다 각자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 형국이다. 그러니 또 다른 에바의 결말을 기대하게 되고, 이는 반복적인 에바 담론의 등장을 가져오게 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 시리즈가 과연 이 물음과 궁금증을 매듭지을지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지.

## V. 닫는 글

이 글은 밝힌 바와 같이 <인류보완계획>을 통해 EOE의 구원관을 살펴보았다. 구원은 인간 존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점에서 EOE도 동일한 선 위에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3개의 보완계획 모두 인간의 한계와 결핍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젤레, 겐도, 신지 이 3자의 구원의 결과는 서로 달랐다.

우선 젤레는 현 인류의 진화를 실패로 결론 내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밀한 설명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세기말적 인식을 용인하자면) 현 인류가 보여준 많은 문명의 결과물들에 대한 뿌리깊은 회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국은 인류의 소멸이다. 매우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겐도의 구원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다. 또한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가 꿈꿔왔던 구원은 잃은 연인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의 존재에 가장 큰 기여를 제공한 것이 바로 그의 아내, 유이였기 때문이다. 아들 신지로도 채울 수 없는 아내의 빈자리. 아내 없는 세상은 그에게 구원일 수 없었다. 신지 역시 그 점에서 아버지를 닮았다. 부모의 빈자리와 그 때문에 생겨난 애정 결핍을 친구와 동료 미사토 등을 통해 채우려 하지만 좀처럼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관계설정이 그를 연이어 힘들게 했다. 결국 신지의 포기는 젤레의 희망과 맞아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써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되지만 신지는 다시 그곳으로부터도 탈출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겼고, 생기고, 또 생겨날 수 있는 상처가 무서워 '합일의 바다'로 숨었는데, 그곳에서 신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대 고독이었다. 그래서 상처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좋아함'이라는 느낌에 힘입어 신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결국 신지의 구원은 '저 곳'이 아니라 '이 곳'인 셈이다.

이제 다시 처음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여는 글에서 시마조노 스스무가 구원을 내세와 현세로 구별했음을 언급했다. 특히 역사종교는 내세를 강조하고, 신종교는 현세를 강조하는 기복적 특징이 강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종교전통들의 구원관을 세심히 살펴보면 스스무의 이 견해는 매우 피상적 분석임을 확인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내세'보다는 '현세'를 강조한다. 내세를 강조하는 경우는 현세에 다양한 이익을 손에 쥔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정도이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에 있다. 불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물론 정토종 계열에서는 여전히 '서방정토'(西方淨土)에 대한 신기루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불교라는 종교의 핵심을 어느 정도 맞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후에 진입하게 될 어떤 종류의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서방정토 역시 불교의 깨달음을 상징화한 '방편적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를 비롯한 '존재의 구성 원리'(五蘊)를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중요한 수행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서에서 언급되는 '천국'(βασιλεία του Θεου)이란 '신의 통치, 혹은 다스림'을 의미한다. 천국은 결코 죽어서 이르는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천국은 이미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통치를 뜻하기 때문이다.<sup>34)</sup> 그렇다면 죽은 다음

34) 그리스도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바람. 이길용, 2009, pp.265-288.

은? 그건 아예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다. 살아서 창조주를 만났는데 왜 죽은 다음을 염려해야 하는가. 따라서 천국이란 용어는 신과 세계, 그리고 인간이 관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이 용어는 신자들이 사후에 들어가게 될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통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윤리적, 실천적, 수양적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sup>35)</sup>

이렇게 본다면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EOE에서 제시되는 구원관 역시 '현세'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이 점에서 기존 종교들의 그것과 같은 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노와 에바 제작진의 확신은 여전히 단단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 역시 기존 많은 사람들처럼 종교를, 구원을 아직도 이상적으로 풀고 있어서, 혹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지만 결국 문제는 '지금'이다. 지금의 해결 없이 내일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그 점에서 많은 종교들은 지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만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가 무서워 내일로 피하고 싶어 할 따름이다. 마치 에바의 신처럼.

## 참고문헌

- 구건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립과 전개」 『일본학보』, 80집(2009), pp.207-224.
- 김성진,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성과 한국적 수용에 관한 연구」, 『만화 애니메이션 연구』, 3호(1999), pp.28-55.
- 김태용, 「주류가 된 오타쿠. 쇠퇴하는 오타쿠 문화」, 『문화과학』, 59호(2009 가을), pp.321-333.
- 박기수,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서사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19집(2001, 6), pp.77-105.
- 이길용, 「새로 쓰는 창세기: <네온 계네시스 에반게리온>의 창세기 이미지 재 활용」, 『영상문화』, 11호(2006), pp.225-242.
- 이길용,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대한 분석적 이해」, 『철학사상』, 13집(2008), pp.59-83.
- 이길용, 「하나님 나라와 시천주-수양론의 시각으로」, 『동학연구』, 17호(2009), pp.265-288.
- 조하선, 『에반게리온: 비밀의 문을 열다』, 나무와 숲, 2009.
- 최인식, 『유대교 산책』, 예루살렘 아카데미, 2008.
- 한창완, 「저패니메이션의 시뮬라시온에 대한 이데올로기 기능 연구-가이낙스그룹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표현코드를 중심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연구』, 2호(1998), pp.32-60.
- Armstrong, Karen, *A History of God 2*, 『신의 역사 2』, 동연, 1999.
- Eliade, Mircea, *Patterns in Comparative*,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85.
- Kirsner, Inge, *Erlösung im Film*, Kohlhammer, 1996.
- Kirsner, Inge (Hg.), *Religion im Kino*, Vandenhoeck & Ruprecht, 2000.
- Napier, Susan J., *Anime: From Akira to Princess Mononoke*, 임경희외 역, 『아니메』, 루비박스, 2005.

35) 그리스도교 구원의 현세성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재림'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리고 내세를 강조하는 종교에서 재림의 교리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토록 현세가 싫고, 지겨워 내세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내세에 도달해있다면, 그리고 누구나 신을 고백하고 수용한 이들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구태여 재림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승을 다시 정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Ponce, Charles, *Kabbalah*, 조하선 역, 『카발라』, 물병자리, 1997.

Smart, Ninian, "Soteriology" in Lindsay Jones (eds),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ition, Vol. 12, Thomson Gale, 2005.

Smart, Ninian, *The World's Religion*, 윤원철 역, 『세계의 종교』, 예경, 2004.

島菌進(시마조노 스스무), 『現代救濟宗教論』, 박규태 역, 『현대 일본 종교문화의 이해』, 청년사, 1997.

## ABSTRACT

# **Understanding the Soteriology of the Film <The End of Evangelion>: Focusing on the ‘The Human Complementation Project’**

Kil-Yong L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ing the soteriology of the film ‘The End of Evangelion’(1997). In many religions the human being is recognized as negative and defect existence, on this count human being needs the salvation. Therefor the word salvation implies the meaning of liberation or overcoming. On this point Christianity, Buddhism, and Islam are of one accord. The christianity sees the original sin as the human limits, and the buddhism points out the ignorance(無明, ajnana) of human being. The soteriology of the film ‘The End of Evangelion’ is similar to the above-mentioned religions. For that the terminology of ‘the Human Complementation Project’ is used in film. In many religions the salvation is fulfilled in this world, in other words ‘now’ and ‘here’ are emphasized fot the accomplishment of the salvation. In this point the film ‘the End of Evangelion’ stands on the same road with the other religions.

Keyword : Evangelion, Gainax, Animation, Anime, Salvation, Soteriology, Qabbalah

이길용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422-74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 2동  
032) 340-9429 / kilyonglee@yahoo.co.kr

논문투고일: 2010.05.17

심사종료일: 2010.06.14

게재확정일: 2010.06.14